

# 우리 이름의 원칙들

## The Principles of Our Name

다음 기사는 근래에 온 이 메일과 조화를 이룬다

친애하는 I,

내가 아직도 그대에게 이 메일을 응답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지난 주는 아주 바쁜 날들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좀 있으므로, 내가 응답합니다. 그대의 질문에 의하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서 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성경과 오직 성경으로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을 가져야 하는 (믿음)의 필요성이 있는가?

인용문: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옹호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The Great Controversy, p. 595]

논쟁이 되는 이름에 대한 기사를 참조로, 이름이 중요한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나, 오직 성경에 의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에 중요성이, 어떻게 유지 될 수 있는가?”

내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는 그대가 참으로 어떤 의혹으로 질문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그들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이 본래 어떤 뜻인지, 또 왜 야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할 것이고, 또 만일 그들의 본래 관심사가,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 때 기독교 교회로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 된다. 내가 이것 둘 다를 제공하면 대체적으로 더욱 완전한 대답이 될 것이다.

먼저, 왜 야께서 우리에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름을 주셨는가? 화이트 자매에 의하면, 개신교도 국가들을 책망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부터 원칙을 끌어내었고, 야웨께서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성품과 선교 사명을 묘사하신 것이다. 내가 이전에 실례들을 약간 제공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이름이 변경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검토할 책임을 졌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빼앗는 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이름이 거룩한 나라에게 적절한 것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카나안들의 땅을 빼앗았고, 또 야웨를 참되게 경배하면서 이교도 종교들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국면을 야께서 소망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 이 뜻은 야웨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다; 이것이 두 가지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그들 둘 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여 그분을 이긴 것이고, 또 다른 쟁점은, 그들이 그분을 이겼다고 말함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적들을 이긴 것이다. 이 경우에, 야웨께서 그 이름을 바꿨다.

페쉬어가 마골-미스아빔이 되었다: 이것이 한층 더 명백하다. 페쉬어는 그릇된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교리는 마지막에 매우 심한 공포가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야께서 선지자의 의도들에 의하여 그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오직 성경에) 원칙이 있다: 사람들이나 또는 한 개인이 직접 영적으로 변천되는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가진 이름은 타당하지 않다. 야께서 새 이름을 준비하실 것이며, 그분 자신이 그것을 실행하거나, 또는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실행하신다. 이것으로 우리가 가진 적당한 전례를 “교리”로 나타낼 수 있다.

SDA 그 자체에 이름이, 역사적으로 또 영적인 면으로 독특하며, 이것이 기독교 종교계에서 전적으로 분리되는 단 하나이며 모든 국면이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주된 두 원칙은 사울이 본 가장 키가 되는 실체에 대단한 문제들이: 법과 은혜이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두 사상들의 균형을 이루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거나 아주 다른 어느 한쪽의 길로 간다. 우리가 이해한 (올법)이 명령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장 많이 오해하여, 대단한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경향이 되었으나,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하는 계명이고, 이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창조주께서 유지하시는 자비를 확인하고, 은혜와 사랑임을 나타낸다.

안식일이 십 계명들에서 “중심부”고, 이것이 종교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에 독특함이 된다. 이교도 종교들조차도 포함된 번역들에서 말하는 것은 독특한 신에게 그대자신을 바치라고 하며, 그 실체의 이름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죽이지 말고, 또 흠치지 말며, 간음과 간통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오직 안식일이 지적하는 것은 야웨의 소망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까운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또 창조주으로써 그분의 권위로써 인침이 포함되었다. - 바꿔 말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열세 동안 야웨께서 (참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재림교인의 이름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복음의 기별들의 완전한 요약을 우리가 본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다리는가?” 이는 조만 간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첫 번째 오셨던 것을 지적하고, 또 이것에 포함된 모든 것이며: 죽음과 부활을 가르친다. 우리가 “제 칠일 안식일 부활론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이것이 적절한 대부분의 복음의 이야기이며, 이는 메시아께서 능력으로 재림하심을 수반하여 심판에 개념이 생략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야웨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름이고, 현대 기독교계의 잘못들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있다. 그분의 법과 은혜의 확실한 증언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신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죽음, 부활, 재림과 메시아 야쉬와의 심판을 사도의 서한으로 열어젖혔다. 이 동기로 그 명칭이 그 개념들을 반영하고; 또 각 개념을 성경말씀에서 개별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교리가 된다.

그러나 왜 그 이름이 되어야 하는가? 결국, 비록 우리가 그 개념들을 동의할지라도 그 개념들이 교회의 성품을 (이름에 따라서) 나타내므로, 우리가 그 단어를 달리 할 수 있다. 실례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명칭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라고 명칭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 때에 영감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우리에게 주었다. 동시에 이것이 두 번째 의혹을 갖게 된다, “성경에 의한 어떤 권위로 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신 옳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주장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현격하게 받아들인 교리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또 만일 그대가 명확한 참고 문헌들이 필요하면, 바로 나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성경상의 교리들:

- 1) 야의 백성들은 항상 독특한 이름을 소유하였고, 또 소유할 것이다.
- 2) 이 이름이 그 국가 또는 그 백성들의 성질 또는 사명을 반영할 것이다.
- 3) 이 이름이 명확하게, 성질 또는 사명의 양상을 반영하여, 종교 세계에 문제가 가장 크게 관련된 상태, 그때 주어진 이름이고 또 사용될 것이다.
- 4) 이 이름이 야웨 그분자신의 신의 출현을 통하였거나 또는 신성한 영감에 의한 사자의 의도들로 (천사 또는 선지자)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 5) 마지막 때에 야웨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성질들을 가질 것이다:
  - a)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 b) 그들이 야쉬와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 c) 그들이 세속적인 조직들의 권력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분리할 것이다.
  - d) 그들이 포함한 멤버들이 영의 선물들을 (예언의 선물을 포함하여) 소유할 것이다.
  - e) 그들이 야웨께서 의도하신 거룩한 영에 지시와 지도를 받을 것이다.

현재, 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립된 것이다. 계시록에 맞추어 기록된 어떤 것을 사용함 없이, 우리가 위에 있는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지적하여 봉사하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성하게 주어진 이름을 소유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명칭이 가짜 종교들 안에 있는 잘못들과 대조를 이루어 고정될 것이다 (이는 현재 종교 세계에 문제가 관련된 상태). 그 다음에 의혹이 되는 것은: 누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것인가?

또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찾은 또 다른 것을 여전히 교리로 호칭할 수 있으며, 두 증언들의 입으로 나타낸 것을 5d와 5e에서 강하게 지적한다: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모스

3: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역기하 20:20)

성경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만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선물들을 소유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그룹 멤버이거나, 교회에 속하면, 우리가 참된 영의 선물을 가진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사람들의 그룹의 멤버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그들의 이름이 그 성질과 사명을 옳게 반영하는 자를 우리가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멤버들이 아니면서, 강력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고 설교하면 우리가 잘못 인도한다고 한다, 그 의도들을 보건대 그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고, 또 복음의 기별을 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오직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신실한 후에 우리가 현대 세상에게 향하여 질문하기를, “오늘 어떤 잘못들이 기독교계에 있는가?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항거하기에 적절한가?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약속한 사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선지자 화이트 자매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갖추었다.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으면, 너희가 번영하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먼저 야웨를 믿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인간과 대화하시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권능으로 확실한 토대를 소유한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엘렌 화이트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또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또... 만일 그대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에서 ‘SDA’의 명칭의 중요함을 보여준 첫 번째 응답으로 돌아가라.

어떤 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에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분명히 참되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 제기된 것은 성경이 의도한 어떤 것을 반대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야웨께서 인간과 대화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위에 교리들에 대하여 작성한 것을 보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믿음이거나, 또는 더 많은 식별력이거나, 또는 아주 더 많은 지식 어느 한 쪽이다. 지금, 만일 그들이 화이트 자매의 기록들을 옹호할 필요가 있으면 (그녀가 혹평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녀가 ‘완고한 말을 한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른 (그리고 더 큰) 주제가 된다. 같은 논쟁이 되는 것은, “글쎄, ‘토요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그대가 완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달력이 바뀌지 않고 고스란히 숨겨졌는가? 어떤 날이 안식일인지 그대가 나에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떤 날이든지 내가 원하는 날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좀 다르고, 조금 더 극단이며, 또한 참으로 같은 영이다: 야웨를 신뢰함이 부족하고, 또 그분께서 인간과 분명하게 대화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분께서 그분의 율법을 보존하시고, 또 복음의 지식과,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타당한 이름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복음 그 자체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말씀에서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구의 형태로 똑 같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정말로** 나타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사자가 그 이름을 미리 준비 한 것이고, **또** 식별력으로 그 사자의 유효함을 시험한다! 우리가 성경에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재림교의 관례가 하나님에 영감에 의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였고, 그 결과 더욱이 사자들이 영감의 통로를 통하여 왔으므로 옳은 자들이다. 바울이 약간 다른 것에 관하여 말한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로 확증한다.

물론, 우리의 확증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칙들을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 생명 샘으로 그들을 이끌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치에 맞는 기초적인 교리들을 뽑아서 작성한 결론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

메시아 안에서 드립니다.

David  
[<http://csda.us/binary/>]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주제는 [명목상 기독교]이다. “기독교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계속 커지고, 또 커지는

동시에 또 감화력은 적어지고 또 적어진다.”

[The Modern Reformation - [http://csda.us/download/M\\_Reform.pdf](http://csda.us/download/M_Reform.pdf)]